

이게 바로 모순인지는 모르겠지만, '이쥬트 통일'이라는 단어보다는 '나의 평화'라는 단어가 더 잘 들리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으로 하루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. 또한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해 남 모르게 베풀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. 감사합니다!